

# 農園같은 축사 조성에 앞장

##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창립 1주년 행사

축산인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모임(대표 이광음)은 지난 12일 영종면 성동리 소재 서울 우수 동북부 지원센터에서 창립 1주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경기도내 회원과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도와 철원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을 맞는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모임 성과를 뒤 돌아보고 향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모임은 축산업이 환경저해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사회적 비판 분위기를 해소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에서 축산물을 생산, 소비자들에게 신선함과 사랑받는 축산이미지를 조성 차원에서 창립했다.

도내에 17개 지부가 창립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돼지와 닭, 한우 등 농장을 소유한 3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천지역에서는 27농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모임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축협, 농업, 산림조합, 환경단체, 축종별 생산자단체 등을 회원이나 자문기관으로 위촉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이광음 대표는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운동은 축산농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이라면서 "축사의부 환경은 정비는 물론 내부환경 및 가족관리 등을 통해 공인같은 농장을 만드는 게 모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모임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축산인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모임은 지난 12일 창립 1주년 행사를 가졌다.

## 포천시 이동민원실 민원고충 덜어 줘 9월14일 소흘읍 송우리에서 첫 실시



지난 14일 소흘읍 송우리 장날 장터 내 빠다귀천국 주차장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이동민원실이 운영됐다.

9월14일 소흘읍 송우리 장날 장터 내 빠다귀천국 주차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이동민원실이 운영됐다.

상당 대상 민원은 크게 ▶시민고충민원 ▶생활불편민원(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문제) ▶이동진료소 운영(양·한방 진료 및 조제약 제공)이었지만 13개 상담분야(일반민원도로·건설 도시계획 농진전문 산지전문 상하수도 노인·장애인 쓰레기·공해지도 기업민원 건축허가 일반내과 한방치료 영농지도)로 나뉘어 시청 민원실 공무원 및 농업기술센터·보건소의료진이 최선의 친절과 최선의 성의로 민원인의 고충을 덜어 주었다.

이날 총괄 반장으로 함께 한 김

는 행정, 세계로 뻗어 가는 행운의 도시 포천을 지향하는 시장님의 시정 정책 일환으로 기능력이 안되거나 행정부처에 직접오기가 쉽지 부담스러운 시민의 고충과 생활불편민원을 직접 찾아 가 현장에서 해결하는 시민 감동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다 많은 민원이 이용해 주실 것을 바란다"며 관내 14개 읍 면 통을 계속 순회하여 금년내 우선 평가를 통해 많은 부분은 수렴 검토 보완 할 계획이며 시민이 정말 신뢰 할 수 있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민원 행정을 펼칠 것임을 강조했다.

김기호 주부영예기자단 고문

## 포천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 새마을운동의 힘찬 재도약 다짐 결의문 채택



포천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이 새마을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남아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지역 새마을 지도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 개최식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 활동을 벌여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천시가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새마을인

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회를 가진 뒤, 한마음 한뜻으로 새마을운동의 힘찬 재도약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봉사활동이 필요한 낙후지역과 소외된 계층을 찾아 어디든 달려가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개최식에 이어 체육행사 화합의 한마당이 잇달아 펼쳐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에어로빅으로 삶의 활력을”

###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 개강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임수홍)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폭넓은 주민자치센터이용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에어로빅 강좌를 개설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오전 10시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에어로빅은 영북면에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시설이 없으니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강하게 된 것이다.

에어로빅 시범이 끝난 후 다과회 자리에서 에어로빅 수강생 20여명과 배상택 영북면장과 임수홍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하고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배상택 영북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일 고만한 점은 민간 프로그램을 관에서 하여 본의아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으며 만일 민간의 영역에 피해를 준다면 폐강할 수밖에 없고, 민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관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이 열약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정 강사는 "에어로빅은 유산소 운동으로서 근력운동인 헬스과는 다른 것이며 초보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어로빅에 관심있는 사람은 영북면 주민자치센터(532-6001)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영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폭넓은 주민자치센터이용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에어로빅 강좌를 개설하고 지난 18일 오전 10시 개강식을 가졌다.

## 공연·전시 나눔사업 실시한다

### 포천시 소외계층 주민 700명까지 지원

포천반월아트홀이 경제형편 등으로 문화활동이 여의치 않은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공연·전시관람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저소득 무부자 가정,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이며 모두 700명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포천반월아트홀은 이들을 위해 공연관람료는 물론,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과 관람안내 서비스 등도 제공하게 된다.

아트홀 관계자는 이번 공연·전시 나눔 사업이 소외계층의 문화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람신청 포천반월아트홀(☎031-538-3555)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반월아트홀

## “자랑스런 農業人을 찾습니다!”

### 오는 9월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포천시는 농업의 품질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발굴, 시상하기 위해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후보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6회를 맞는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은 논농사, 원예, 축산, 농산물가공, 과수, 임업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1명씩 모두 6명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첨단기술농업, 고품질농업, 수출

농업, 환경농업 등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자로, 5년 이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생산자 단체의 경우에는 '과학농업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의 유통개선'을 통해 선진농업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 작목반'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신청은 9월30일까지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

동사무소, 또는 시청 농축산과나 지역농협 등으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수상신청서와 이력서, 기타 공적증빙서류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부서나 시청 농축산과 농정부서(☎031-538-2328)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는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식과 기술, 경영방법을 널리 알려 세계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자유 기고

### 마라톤 참가기



이명순 주부영예기자단 소흘읍지부장

DMZ 철원국제마라톤대회에 하루 전날 밤찬과 고기 50인분을 준비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새벽5시에 일어나 청성공원에서 만나 6시20분

에 출발했다. 철원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선수들 행거서 보내는 사이에 풀코스, 10km, 6km 참가자들 모이며 뽀빠이 이상용씨가 안내를 하고 있다.

사회자 이상용씨의 입담에 너무 많이 웃을 수 있었고 스트레칭을 지도해 준 숙명여대 응원단들도 선수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즐거운 체조를 마치고 출발점으로 이동했다.

설레이는 마음에 풀코스 준비하고 6km 출발하고 남은 10km 대기중 이상용씨는 마라톤사회를

29년간 진행했는데 한번도 뛰어 보지는 못했고 충청도에서 실시하는 마라톤사회를 진행하는데 너무 느려서 다음날 들어오는 선 수도 없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

출발신호가 울리고 달리기 3km를 지나 힘이 드는 것 같았다. 분위기에 휘말려서 초반 오버페이스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냉정한 호흡을 고르며 나의 페이스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추위를 허용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맛바람까지 불어오고 숨은 가빠오고 추위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페이스로 달리니 반쯤이 넘어간다.

반쯤을 돌아서면서부터는 숨을 고르고 등수도 못 들어가도 1시간 안에는 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열심히 달렸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한달 이상 연습을 인해 스피드가 나질 않고 다리로 힘이 풀리고 있는데 6km 지점을 통과하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

아저씨가 6km를 신청해서 열심히 목발로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힘을 내어 "오빠 파이팅!" 외치니 그분이 고맙다고 한다. 두 다리와 두 팔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나? 하는 마음에 힘을 내어 질주하다 보니 끝인지짐이 눈에 들어온다.

표정을 가다듬고 응원하시는 분들의 환호를 받으며 끝인 56분 57초 기록, 여자 254명중 29등, 잘 뛰지는 못했지만 오는 10월29일 춘천 조선일보 마라톤 풀코스를 대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나 자신과 맹세하며 나의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경기민요와 마라톤을 열심히 할 것이다.

경기소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흐트하고 마라톤은 한 가족이 되어서 어우러지는 한마당 건 강한 사람들이 모여 뛰고 들어와서 웃고 즐기는 한 식구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어 같이 뛰어봅시다.

## 이런孝子도 있었는가?



윤순옥 포천지역민원회고문

아침 7시 TV에서 지계 효자가 소개되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이던가? 돈 때문에 형제끼리 살인까지 불사하고 늙은 부모가 싫어 말라 타

지에다 버리고 오는 딸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 세대가 아니던가. 그런 세상에 구순의 아버님을 지계에 태우고 금강산 관광까지 시켜드린 효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배우기보다는 한번쯤 보았으면..... 그 효자 집엔 TV가 한 대밖에 없었다. 오직 할아버지 방에 온 식구가 함께 모여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나 자연스런 온기는 그 방에 머무니.... 인간사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찌 고운 씩이 돌지 않으리..... 나에게도 구순이 내일 모래인 시어머니가 계산다. 모시고 산지 여든 몇 년 안에 40년이 다

된다. 효심보다는 의무감으로 모신 것 아닐까? 그런지도 모른다. 다행이 남편은 주위에서 말하는 효자다. 가끔은 내 비위를 건드릴 만큼의 효자다. 구체적인 것이야 서로의 생각과 마음에 달렸지만 괴물 하나 드러도 잘 익고 맛있는 것을 어머니 것으로 고르는 섬세한 남자?

어디를 가도 끼니때면 며느리보다 먼저 전화로 식사 챙겨드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보니 연로하신 어머니의 위생에 대왕대비가 되겠다. 그것도 중전을 우습게 보는 콧대 높은 대왕대비? 요즘 세상에 조금은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우리 집에선 오래된 이야기다. 거기에 상공(시누이)들이 더 요란하다. 율케에게 대하는 행태(?)는 가히 수준급이다.

이런 일이 있어도 전하(남편)께서는 수수방관이다. 이유인즉, 마누라는 헤어지면 남이요, 형제 지간은 한 번 돌아서면 서로에게

삼척가 크니 아픔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귀먹고 눈감고 지내니 무뎠다. 다신기꺼서 참고 이해하라. 세월이 가면 다 아예 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세월은 내 나이 회갑이 되어도 회갑의 날이 오질 않는다.

삼척한 시베리아에서 오지 않는 봄을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어찌 불발만이 전부이겠는가?

젊은 날 너무도 열심히 살아온 덕에 오늘날 같은 평온의 날이 있으니 마음 한쪽에선 꽃도 피고 새가 우니 화평한 봄날이라 생각 한다.

아이들이 각자 결혼해서 나를 대로 잘 살고 있고 아들(2명)들은 성격상으로 봐서 효자인 아들 지를 일본의 일은 닮은 것 같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두 무엇을 바랄 것인가. 그저 감사함을 늘 가슴에 지니고 미운 사람 없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노년의 세월을 함께 함을 기도하는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가리.

## 늦각이 열정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자, 우리 그동안 배운 것들을 연주해보자요. 김수철의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분산화음이 되시는 분은 분산화음으로 하시고, 안되

면 그냥 리듬으로 연주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니 40을 훌쩍 넘어서 50대 중 후반인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혹은 부부동반으로 영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모여 열심히 기타를 배운다.

대부분 사임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어 시간대기가 어려운 사람들도도 지난 몇달 간 정말 열심히 배운 덕에 이제 가을 연주회를 코 앞에 두고 막

바지 연습에 한창인 것이다. “우선 먹고 합시다. 입이 즐거워야 노래도 잘 나오지요~” 우리 동아리 회장님이 튀김과 음료수, 다른 회원은 감자 송편, 또 한 회원은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와 다들 푸짐하게 파티를 하며 즐거운 기분으로 저녁시간을 즐기고 있다.

기타동아리는 지난 4월부터 이렇게 모여 강의가 끝난 후에는 다함께 탁구를 치거나 헬스를 하고, 야간 등산도 즐기면서 가족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 지역 주민자치센터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어 가고 있다.

덕분에 나는 주말도 반납하고 저녁 늦게까지 회원들과 어울려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 피곤하더라도 마음만은 늘 보람되고 즐거웠다.

처음 강의를 부탁 받을 때만해도 나는 그저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수강료도

받지 않고 하겠다고 제안했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과 주말지역이라는 강의시간이 부담이 되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배우는 분들이 처음부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나도 덩달아 신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가 자랑해서 강의시간을 하루 더 잡아 주 3회 화, 목, 토요일로 늘려 강의 하고 있다.

우리들은 첫 연주회를 시작으로 이미 여러 군데 연주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에 이르러 한 연주회를 통한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제 9월부터 회비도 모금하여 직접하고 회장, 총무도 선출하여 새로운 출발을 위해 도약하고 있는 우리 기타동아리.

어디에 내놓더라도 결코 뒤쳐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 오늘도 맹연습중이다. 영북면 기타동아리 화이팅!!!